

'잼버리 공헌' 반기문 명예도민 되다

“세계대회 새만금 유치
국가 위상 크게 높여
성공개최 역할 다할 것”

전북도 방문해 특강 후
도지사·시장과 의견 나눠

반기문 前 UN사무총장이 전라북도 명예도민이 됐다.

전북도는 4일, 전북도청을 방문한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에게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명예도민증은 반 총장이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해 지난 8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 직접 참석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유치를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돼 전격적으로 수여하게 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오늘 이 자리는 반기문 총장께서 전북도민이 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며 “앞으로 세계잼버리 개최와 전라북도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반기문 총장은 이에 대해 “새만금 잼버리 유치는 국가의 위상을 크게 높인 것으로, 앞으로 새만금(준비)은 물론 전라북도 역할과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며 “잼버리는 세계 청소년과 인사를 5만여명 이상이 오는



송하진 도지사는 4일 전북도청을 방문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에게 전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있다.

대회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대회이므로 성공개최를 위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 총장은 또 “잼버리대회를 기점으로 새만금과 전라북도가 전 세계에 크게 알려질 것”이라며 “대회 이후 지속 활용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예도민이 된 반기문 총장은 이어

진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UN 사무총장으로서의 경험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강연하였으며 반 총장의 열정적 강연에 수차례 박수가 쏟아지는 등 시종일관 진지하면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반 총장은 특강 후 유순택 여사와 함께 오찬장으로 이동해 송하진 도

지사, 황현 도의장, 문동신 군산시장, 이진식 김제시장, 김종규 부안군수,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과 함께 새만금과 세계잼버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후 새만금 33센터를 방문해 새만금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마지막으로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에 정지를 찾았다. /김진성 기자

청렴전북 도약 '가속 페달'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도내 7개기관 합동 개최 '청렴누리 문화제' 일한

전북도는 오는 6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 및 시·군 직원과 도 출연·위탁 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이 시행(2016. 9. 28.)된 지 1년째 접어드는 시점에 도, 시군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도내 공직자 등이 함께 모여 법률의 제정 취지와 적용대상, 부정청탁행위의 유형 및 적발사례 등을 되짚어 보고 청렴한 사회를 정립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도내 7개 기관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전북 청렴누리 문화제'의 행사

일환으로 개최, 공직자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 도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맞추어 감사 또한 가장 쉽게 가장 재미있게 청렴교육을 한다고 유튜브 등에서 명성있는 재미있는 교육컨설팅 정승호 대표를 초빙했다.

도 박용준 감사관은 “이번 교육이 우리 공직사회와 공직자 등이 도민들로 신뢰받고 지지받는 청렴한 전라북도로 거듭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교육의 핵심내용인 「청탁 금지법」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들도 알아야 하는 법률이므로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개인정보 침해 빈번... 관리강화 시책 마련”

송지용 도의원 조례안 발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전라북도의회 송지용 의원(민주당, 완주·사진)이, 4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346회 임시회에서 발의 했다.

조례안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마련과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책마련 등 도지사의 책임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유출시 대책,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할 수

송지용 의원은 “최근 들어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해 개인정보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도의 책무를 강화하고 사고 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 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 탄소산업 활성화 신호탄

탄소섬유 생산원가 저감 원천기술 개발 성공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섬유 생산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탄소섬유 상용화를 위한 최대 장벽으로 지적됐던 제조원가 절감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저가형 범용 탄소섬유 보급 등 향후 전주시가 추진하는 탄소산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제탄소연구소는 미국 텍사스 주립대의 공동연구를 통해 기존 습식(용액)공정으로만 제조되는 탄소섬유용 PAN 프리커서 섬유의 제조방식을 용융공정으로 대체해 탄소섬유 제조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술 개발은 기술원과 미국

텍사스주립대(양덕주 박사)가 지난 2010년 기술원 산하 국제탄소연구소 개소식 당시 기술원과 텍사스 주립대가 연구협력 업무협약을 맺은 지 7년 만에 거둔 성과물이다.

기술원은 탄소섬유 전체 제조비용의 51%를 차지하는 프리커서 제조방식을 새로 개발된 기술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30% 이상의 생산 단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

다보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개발한 탄소섬유 저가화 기술은 습식방식에 비해 단순한 설비만으로도 생산 속도가 높은 용융방식에 의해 섬유를 제조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은 물론 생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원은 조만간 기술 사업화를 위한 생산기술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술원은 최근 독일 KIT대학과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에너지 효율적인 안정화 탄화 기술 개발에 착수, 향후 탄소섬유 제조 전 공정에서 생산원가를 혁신할 수 있는 제조기술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재난위기 상황 지휘자 리더십 높인다

도, 부서장 공무원 대상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

전북도는 재난관리책임 부서장의 재난관리 리더십 강화를 위해 5일 전북 공무원교육원에서 도와 시·군 실·국·과장 부서장 공무원 61명을 대상으로 2017년 맞춤형 재난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재난위기 상황에서 실제 지휘자 역할을 하는 부서장들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전문교육이다.

교육은 체계적인 재난현장 대응 및 수습지원 역량 강화중심으로 재난지휘자의 임무와 역할, 국내·외 사례를 통한 사회재난의 이해, 재난과 업무 연속성의 관리체계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도 이현용 도민안전실장은 “재난현장에서 부서장의 신속한 상황 판단 및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재난안전 부서장 교육을 통해 재난지휘자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숙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